

CFE REPORT

CFE Report

2023. 10. 19

#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

최동용  
(자유기업원 연구원)



## <요 약>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세경쟁력지수로 수치화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조세환경의 개방화와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각 국가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은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23위를 했으며, 작년에 비해 1단계 순위 상승했다. 분야별로 따져보면 소비세 분야는 세계 2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재산세 분야(32위)와 개인소득세 분야(37위)는 하위권으로 분야 간 순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에스토니아가 가장 조세경쟁력이 있으며,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콜롬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포르투갈 등이 가장 조세 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포함되었다.

셋째,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로 나뉘고, 이들의 공통점은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정부의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의해 많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세금 체계 변화가 발생하였다. 경기하강국면에 세수부족을 직면하여 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세금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 <목 차>

- I. 조세경쟁력지수 소개
- II.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 III. 분야별 세계 조세경쟁력지수
- IV.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I

## 조세경쟁력지수 소개

- 조세경쟁력지수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평가
  - ▶ 조세경쟁력지수를 통해 각 국가가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 평가
  - ▶ ‘조세경쟁력지수’는 1년 단위로 OECD 38개국을 조세정책자료로 측정
-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은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
  - ▶ ITCI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좋은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
- ITCI는 5개 분야(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로 구분하여 평가
  - ▶ 5개 분야는 다시 2~4개 항목으로 나뉘어 분석(<표 1> 참조)
  - ▶ 각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 함
  - ▶ 각 분야별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후 이를 종합 지수화 함
  - ▶ 지수 계산 값이 100점 만점인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에 규제가 적음을 의미
-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냄
  - ▶ 법인세 분야는 최고한계세율, 비용보상, 세제복잡성 항목으로 구성
  - ▶ 최고한계세율은 높을수록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 조세경쟁력 지수는 하락
  - ▶ 비용보상은 기업자산의 감가상각율에 따라 투자자금비용의 세금감면이 달라지므로 감가상각율이 높아질수록 조세경쟁력 지수는 상승

- 개인소득세는 급여, 자본수익과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 ▶ 개인소득세 분야는 누진소득세율, 세제복잡성, 자본금과세 항목으로 구분
  - ▶ 자본금과세율과 누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경쟁력지수는 하락
  
- 소비세는 적절한 분야에 과도하지 않은 소비세 부과를 하는지에 따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정도를 보임
  - ▶ 소비세 분야는 소비세율, 과세표준최저한 항목으로 구분
  - ▶ 우리나라는 소비세는 주로 부가가치세를 시행
  - ▶ 소비세율이 높을수록 구매자의 소비 및 기업투자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세경쟁력 지수는 하락
  
- 재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
  - ▶ 재산세 분야는 부동산세, 부유세, 자산거래세 항목으로 구분
  - ▶ 재산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활동의 의욕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세 경쟁력지수는 하락
  
- 국제조세 분야는 국외수입에 대한 국내세제 체계를 평가
  - ▶ 국외소득공제, 원천과세율, 조세협정, 조세회피규제 항목으로 구분
  - ▶ 국외소득공제는 국외배당금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공제율이 높을수록, 조세 협정 국가가 많을수록 조세경쟁력지수는 상승
  - ▶ 국외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규제가 강할수록 조세 경쟁력지수는 하락(<표 1> 참조)



<표 1> 분야별 항목과 지수와의 관계

분야	항목	설명	관계
법인세	최고한계세율	•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할 세율 중 최고 세율	-
	비용보상	• 감가상각을 통한 투자자금비용 세금감면	+
	세제복잡성	• 특정분야에 대한 세금혜택에 따른 세금 처리절차 복잡	-
개인 소득세	누진소득세율	• 최고한계경상수익 세율 및 소득세누진세율	-
	세제복잡성	• 산정과정 복잡성 및 조세부과시간	-
	자본금과세	• 최고한계자본이익 세율 및 최고한계배당금 세율	-
소비세	소비세율	• 부가가치세율 및 소매소비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	• 부가가치세 과세감면을 위한 과세최저한 설정	-
재산세	부동산세	• 토지, 건물,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과세적용 여부 및 정도	-
	부유세	• 부유세 유무와 상속세율 정도	-
	자산거래세	• 부동산거래세 및 금융(주식)거래세 유무	-
국제 조세	국외소득공제	• 국외배당금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공제	+
	원천과세율	• 배당금, 이자, 로열티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과세 통해 세액 징수	-
	조세협정	• 중복과세 및 원천과세를 줄이거나 감소하기 위한 국가 간 조세 조약	+
	조세회피규제	• 조세회피를 줄이고자하는 국가들의 규제	-

## II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61.6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
  - ▶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음
  -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 63.3점에서 1.7점 하락했으며,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상승
  - ▶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 소비세 분야는 95.0점(100점 만점)으로 2위 기록
  - ▶ 법인세 분야는 55.0점, 국외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두 분야 모두 26위 기록
  
-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
  - ▶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8개국 중 37위 기록
  - ▶ 재산세는 41.0점으로 32위로 기록(<표 2> 참조)

<표 2> 2023년 한국조세경쟁력지수 비교

분 야	2023	항 목	2023
법인세	55.0 (26)	최고한계세율	44.5 (28)
		비용보상	50.5 (9)
		세제복합성	64.3 (30)
개인소득세	49.3 (37)	누진소득세율	66.1 (33)
		세제복합성	55.9 (34)
		자본금과세	62.5 (20)
소비세	95.0 (2)	소비세율	89.5 (3)
		과세표준최저한	68.1 (11)
재산세	41.0 (32)	부동산세	37.4 (34)
		부유세	70.9 (12)
		자산거래세	46.1 (32)
국제조세	63.8 (26)	국외소득공제	56.5 (34)
		원천과세율	45.4 (26)
		조세협정	76.6 (9)
		조세회피규제	48.6 (22)
<b>전체 지수</b>	<b>61.6 (23)</b>		

## III

## 분야별 세계 조세경쟁력지수

## 1. 종합 평가

-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 기록
  - ▶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38위를 하며 최하위를 기록
  - ▶ 호주 10위(75.9점), 미국 21위(65.0점), 일본 24위(61.5점), 영국 30위(56.1점), 프랑스는 36위(49.1점)를 기록(<표 3> 참조)
  
- 1위한 에스토니아의 조세경쟁력에는 네 가지 원인 존재
  - ▶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
  - ▶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
  - ▶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
  - ▶ 속지세 체계로 운영
  
- 콜롬비아(38위)는 최하위 기록
  - ▶ 순부유세, 금융거래세 등 35%의 가장 높은 소득세로 가장 낮은 조세경쟁력
  - ▶ 부가가치세는 40%미만이지만, 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차이 발생
  
- 비경쟁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 ▶ 부동산세, 부동산양도세, 금융거래세 등 선택된 자산의 부유세에 대한 별도의 부과금을 부여하는 다양한 왜곡된 재산세
  - ▶ 22%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좁은 소비과세기준을 유지(<표 4> 참조)



〈표 3〉 2022, 2023년 국가별 조세경쟁력지수 비교

전체국가	2023 순위	2023 지수	2022 순위	2022 지수
에스토니아	1	100.0	1	100.0
라트비아	2	88.5	2	89.7
뉴질랜드	3	86.1	3	87.8
스위스	4	84.7	4	85.3
체코	5	81.2	5	81.8
룩셈부르크	6	78.9	7	78.2
튀르키예	7	78.6	10	75.7
이스라엘	8	78.3	8	78.0
리투아니아	9	76.6	9	76.7
호주	10	75.9	6	78.6
헝가리	11	75.0	11	75.5
슬로바키아	12	74.3	12	73.9
스웨덴	13	73.3	13	73.7
네덜란드	14	70.6	14	71.0
캐나다	15	69.8	15	70.0
슬로베니아	16	66.6	19	66.7
노르웨이	17	66.6	16	68.5
독일	18	66.6	20	66.4
핀란드	19	66.5	18	67.1
오스트리아	20	65.3	17	67.4
미국	21	65.0	21	66.0
코스타리카	22	64.8	23	63.5
한국	23	61.6	24	63.3
일본	24	61.5	26	62.8
그리스	25	61.4	25	62.9
멕시코	26	60.1	28	60.9
벨기에	27	60.0	22	64.4
아일랜드	28	58.9	30	58.2
덴마크	29	58.5	29	58.5
영국	30	56.1	27	61.7
스페인	31	55.8	32	56.5
아이슬란드	32	55.5	34	55.1
폴란드	33	55.3	33	55.3
포르투갈	34	52.1	35	51.3
칠레	35	50.5	31	57.6
프랑스	36	49.1	36	48.1
이탈리아	37	48.4	37	47.4
콜롬비아	38	46.4	38	47.3

〈표 4〉 국가별 조세경쟁력지수(2023)

전체 순위	국가명	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전체 지수
1	에스토니아	98.6 (2)	100.0 (1)	64.2 (15)	100.0 (1)	80.8 (11)	100.0
2	라트비아	100.0 (1)	94.6 (3)	48.3 (27)	77.1 (5)	83.9 (9)	88.5
3	뉴질랜드	52.5 (29)	93.8 (5)	100.0 (1)	74.6 (8)	73.8 (19)	86.1
4	스위스	71.0(10)	89.1 (9)	94.9 (3)	36.9 (36)	100.0 (1)	84.7
5	체코	75.6 (6)	94.4 (4)	50.4 (25)	76.7 (6)	81.7 (10)	81.2
6	룩셈부르크	58.0 (23)	68.7 (21)	84.5 (7)	64.9 (14)	92.6 (5)	78.9
7	튀르키예	69.2 (11)	89.4 (7)	66.8 (13)	57.7 (22)	86.5 (7)	78.6
8	이스라엘	66.7 (13)	68.0 (23)	77.8 (11)	68.6 (11)	84.8 (8)	78.3
9	리투아니아	84.3 (3)	84.0 (10)	45.8 (30)	75.3 (7)	71.1 (22)	76.6
10	호주	48.4 (32)	75.6 (14)	81.6 (9)	79.4 (4)	72.2 (21)	75.9
11	헝가리	82.1 (4)	91.1 (6)	31.8 (38)	57.0 (23)	96.7 (3)	75.0
12	슬로바키아	65.1 (18)	99.9 (2)	46.3 (29)	80.4 (3)	62.0 (30)	74.3
13	스웨덴	74.3 (8)	68.7 (20)	52.4 (21)	72.5 (10)	80.2 (13)	73.3
14	네덜란드	57.6 (25)	69.0 (19)	59.7 (16)	59.2 (21)	95.3 (4)	70.6
15	캐나다	58.0 (24)	64.2 (24)	81.7 (8)	52.9 (25)	78.8 (15)	69.8
16	슬로베니아	75.4 (7)	77.1 (13)	44.0 (31)	55.0 (24)	74.3 (18)	66.6
17	노르웨이	66.6 (14)	62.6 (27)	51.6 (23)	63.1 (15)	80.7 (12)	66.6
18	독일	50.9 (31)	52.3 (35)	65.1 (14)	68.2 (12)	87.5 (6)	66.6
19	핀란드	74.2 (9)	64.1 (25)	51.6 (24)	61.0 (19)	72.7 (20)	66.5
20	오스트리아	62.6 (20)	58.1 (30)	58.8 (17)	62.9 (16)	76.9 (16)	65.3
21	미국	58.4 (22)	68.4 (22)	93.6 (4)	46.1 (29)	50.1 (35)	65.0
22	코스타리카	39.2 (36)	55.2 (33)	86.0 (5)	73.6 (9)	61.6 (31)	64.8
<b>23</b>	<b>한국</b>	<b>55.0 (26)</b>	<b>49.3 (37)</b>	<b>95.0 (2)</b>	<b>41.0 (32)</b>	<b>63.8 (26)</b>	<b>61.6</b>
24	일본	51.0 (30)	53.0 (34)	85.7 (6)	50.3 (26)	64.4 (25)	61.5
25	그리스	64.2 (19)	89.2 (8)	38.2 (33)	47.1 (28)	70.4 (23)	61.4
26	멕시코	53.5 (27)	60.3 (28)	67.6 (12)	80.5 (2)	35.5 (38)	60.1
27	벨기에	66.6 (15)	77.9 (11)	52.2 (22)	45.1 (30)	59.8 (33)	60.0
28	아일랜드	80.5 (5)	56.5 (31)	36.1 (34)	62.7 (17)	59.2 (34)	58.9
29	덴마크	65.4 (17)	50.2 (36)	53.5 (20)	62.3 (18)	62.0 (29)	58.5
30	영국	53.4 (28)	64.1 (26)	35.6 (35)	40.1 (35)	97.4 (2)	56.1
31	스페인	48.3 (33)	69.5 (17)	57.3 (19)	36.6 (37)	76.2 (17)	55.8
32	아이슬란드	67.2 (12)	69.2 (18)	47.4 (28)	40.2 (34)	61.3 (32)	55.5
33	폴란드	66.0 (16)	77.1 (12)	35.2 (36)	43.9 (31)	63.7 (27)	55.3
34	포르투갈	38.8 (37)	59.5 (29)	50.3 (26)	60.6 (20)	63.6 (28)	52.1
35	칠레	40.1 (35)	36.3 (38)	79.8 (10)	67.4 (13)	38.0 (37)	50.5
36	프랑스	46.3 (34)	55.9 (32)	41.2 (32)	40.7 (33)	79.9 (14)	49.1
37	이탈리아	59.0 (21)	70.8 (16)	32.9 (37)	31.8 (38)	67.2 (24)	48.4
38	콜롬비아	31.7 (38)	74.7 (15)	58.2 (18)	48.2 (27)	39.9 (36)	46.4



## 2. 법인세 분야

- 법인세는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 ▶ 최고한계세율, 비용보상 및 세제복잡성 항목으로 구성
  - ▶ 과도한 법인세 부과는 저임금, 투자 배당금 저하로 소비자가격 상승 등을 유발
  
- 한국은 법인세 분야에서 55.0점으로 26위
  - ▶ 최고한계세율 항목이 44.5점(28위), 비용보상 항목이 50.5점(9위), 세제복잡성 항목이 64.3점(30위)
  - ▶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
  
- 라트비아는 1위를 차지하며 법인세 분야 100점,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38위 기록
  - ▶ 라트비아는 비용보상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1위를 하며 법인세 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법인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 획득
  - ▶ 콜롬비아는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법인세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 획득
  
-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표 5> 참조)

&lt;표 5&gt; 법인세 3개 항목(2023)

법인세 순위	국가명	최고한계세율	비용보상	세제복합성	법인세지수
1	라트비아	64.9 (8)	100.0 (1)	100.0 (1)	100.0
2	에스토니아	64.9 (8)	100.0 (1)	95.3 (3)	98.6
3	리투아니아	80.9 (3)	64.6 (4)	66.6 (26)	84.3
4	헝가리	100.0 (1)	34.4 (36)	63.0 (31)	82.1
5	아일랜드	88.8 (2)	39.9 (29)	72.8 (20)	80.5
6	체코	68.1 (4)	44.7 (23)	91.7 (6)	75.6
7	슬로베니아	68.1 (4)	44.6 (24)	91.2 (7)	75.4
8	스웨덴	63.0 (13)	46.4 (17)	95.2 (4)	74.3
9	핀란드	64.9 (8)	40.3 (28)	99.8 (2)	74.2
10	스위스	66.0 (7)	50.2 (10)	73.2 (19)	71.0
11	튀르키예	64.9 (8)	48.1 (15)	72.5 (21)	69.2
12	아이슬란드	64.9 (8)	45.0 (21)	70.4 (24)	67.2
13	이스라엘	55.3 (18)	48.8 (13)	82.8 (13)	66.7
14	노르웨이	58.5 (15)	38.8 (30)	89.9 (9)	66.6
15	벨기에	49.0 (21)	61.8 (5)	76.9 (16)	66.6
16	폴란드	68.1 (4)	48.4 (14)	55.7 (35)	66.0
17	덴마크	58.5 (15)	40.6 (27)	83.5 (12)	65.4
18	슬로바키아	61.7 (14)	44.7 (22)	70.5 (23)	65.1
19	그리스	58.5 (15)	35.5 (34)	86.8 (11)	64.2
20	오스트리아	52.1 (19)	55.0 (7)	67.3 (25)	62.6
21	이탈리아	40.0 (30)	67.6 (3)	62.4 (32)	59.0
22	미국	46.5 (24)	45.5 (20)	78.2 (15)	58.4
23	룩셈부르크	49.1 (20)	49.6 (11)	66.1 (27)	58.0
24	캐나다	45.1 (27)	43.4 (25)	82.5 (14)	58.0
25	네덜란드	46.4 (25)	47.1 (16)	73.6 (17)	57.6
<b>26</b>	<b>한국</b>	<b>44.5 (28)</b>	<b>50.5 (9)</b>	<b>64.3 (30)</b>	<b>55.0</b>
27	멕시코	33.0 (34)	42.3 (26)	93.7 (5)	53.5
28	영국	49.0 (21)	45.7 (19)	56.8 (33)	53.4
29	뉴질랜드	39.4 (31)	35.5 (33)	87.2 (10)	52.5
30	일본	33.8 (32)	37.4 (31)	90.8 (8)	51.0
31	독일	33.2 (33)	50.8 (8)	73.2 (18)	50.9
32	호주	33.0 (34)	45.9 (18)	72.4 (22)	48.4
33	스페인	49.0 (21)	37.2 (32)	52.2 (36)	48.3
34	프랑스	46.3 (26)	49.4 (12)	34.0 (38)	46.3
35	칠레	42.6 (29)	24.6 (38)	56.2 (34)	40.1
36	코스타리카	33.0 (34)	29.4 (37)	65.5 (29)	39.2
37	포르투갈	28.2 (37)	57.8 (6)	34.4 (37)	38.8
38	콜롬비아	17.1 (38)	34.7 (35)	65.7 (28)	31.7



### 3.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는 보편화된 정부수입증대의 수단으로 개인(가계)의 급여, 자본증대 및 배당금 등이 과세대상
  - ▶ 개인소득세는 투명성의 이점이 있지만 누진성으로 인해 개인수입이 증가할수록 조세 부담도 확대
  
- 한국은 개인소득세 분야 49.3점으로 37위
  - ▶ 누진소득세율 항목(66.1점, 33위)과 세제복잡성 항목(55.9점, 34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 자본금과세 항목은 62.5점으로 20위 기록
  
- 에스토니아는 개인소득세 분야 100점으로 1위, 칠레는 36.3점으로 38위 기록
  - ▶ 에스토니아는 누진소득세율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1위 기록
  - ▶ 칠레는 누진소득세율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표 6> 참조).

〈표 6〉 개인소득세 분야 3개 항목(2023)

개인소득세 순위	국가명	누진소득세율	세제복합성	자본금과세	개인소득세 지수
1	에스토니아	100.0 (1)	99.9 (2)	88.3 (4)	100.0
2	슬로바키아	89.2 (5)	99.9 (2)	100.0 (1)	99.9
3	라트비아	90.1 (4)	99.9 (2)	88.3 (4)	94.6
4	체코	93.8 (2)	99.9 (2)	83.8 (10)	94.4
5	뉴질랜드	85.6 (7)	99.9 (2)	91.6 (3)	93.8
6	헝가리	93.5 (3)	99.5 (30)	77.8 (13)	91.1
7	튀르키예	81.9 (11)	99.9 (2)	86.8 (7)	89.4
8	그리스	80.4 (15)	99.9 (2)	87.9 (6)	89.2
9	스위스	83.4 (9)	99.9 (2)	84.5 (9)	89.1
10	리투아니아	84.5 (8)	99.9 (2)	73.1 (16)	84.0
11	벨기에	70.0 (28)	99.9 (2)	76.7 (15)	77.9
12	폴란드	74.6 (25)	99.9 (2)	70.0 (17)	77.1
13	슬로베니아	66.1 (32)	99.9 (2)	79.2 (12)	77.1
14	호주	80.7 (13)	99.9 (2)	60.4 (21)	75.6
15	콜롬비아	69.4 (29)	75.0 (32)	93.0 (2)	74.7
16	이탈리아	75.7 (23)	99.9 (2)	56.3 (22)	70.8
17	스페인	75.2 (24)	99.9 (2)	54.2 (24)	69.5
18	아이슬란드	82.8 (10)	78.5 (31)	64.1 (19)	69.2
19	네덜란드	78.3 (18)	99.9 (2)	49.7 (29)	69.0
20	스웨덴	78.9 (16)	100.0 (1)	48.4 (3)	68.7
21	룩셈부르크	80.4 (14)	55.9 (34)	85.8 (8)	68.7
22	미국	76.4 (21)	99.9 (2)	50.7 (27)	68.4
23	이스라엘	76.0 (22)	99.9 (2)	50.1 (28)	68.0
24	캐나다	76.5 (20)	99.9 (2)	42.0 (34)	64.2
25	핀란드	72.9 (26)	99.9 (2)	45.8 (32)	64.1
26	영국	70.5 (27)	99.9 (2)	48.4 (31)	64.1
27	노르웨이	81.6 (12)	99.9 (2)	33.2 (36)	62.6
28	멕시코	62.8 (34)	64.9 (33)	80.3 (11)	60.3
29	포르투갈	58.4 (36)	99.9 (2)	52.4 (26)	59.5
30	오스트리아	55.0 (37)	99.9 (2)	53.3 (25)	58.1
31	아일랜드	78.5 (17)	99.9 (2)	24.3 (38)	56.5
32	프랑스	62.5 (35)	99.9 (2)	40.6 (35)	55.9
33	코스타리카	86.1 (6)	27.4 (38)	77.8 (13)	55.2
34	일본	68.6 (30)	55.9 (34)	67.4 (18)	53.0
35	독일	78.0 (19)	55.9 (34)	55.5 (23)	52.3
36	덴마크	66.5 (31)	99.9 (2)	25.0 (37)	50.2
<b>37</b>	<b>한국</b>	<b>66.1 (33)</b>	<b>55.9 (34)</b>	<b>62.5 (20)</b>	<b>49.3</b>
38	칠레	22.3 (38)	99.9 (2)	45.2 (33)	36.3



#### 4. 소비세 분야

- 소비세는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부과되는 세금
  - ▶ 국가마다 소비세 체계는 매우 다양하며 OECD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널리 도입된 소비세
  - ▶ 일반적으로 소비표준과세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소비세는 기업의 중간재에 세금부과를 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중간재의 소비세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
  - ▶ 기업 중간재의 소비세 공제는 세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많은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거나, 공제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여 정책 실패
  - ▶ 국가는 불필요한 분야에서 소비세를 면제하고 대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분야에 더 높은 소비세율을 부과
  - ▶ 세금부과의 왜곡은 조세경쟁력의 하락 원인
  
- 한국은 소비세 분야 95점으로 2위 기록
  - ▶ 소비세율 항목(89.5점, 3위)과 과세표준최저한 항목(68.1점, 11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 소비세 분야 2위로 5개 분야 중 조세경쟁력이 가장 높음
  - ▶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10%로 OECD 38개국 평균인 19%보다 낮으며 세율 평률적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함
  
- 뉴질랜드는 소비세 분야 100점으로 1위, 헝가리는 31.8점으로 38위 기록
  - ▶ 뉴질랜드는 과세표준최저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소비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수를 차지
  - ▶ 헝가리는 소비세율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소비세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수를 기록(<표 7> 참조)

〈표 7〉 소비세 분야 2개 항목(2023)

소비세 순위	국가명	소비세율	과세표준최저한	소비세지수
1	뉴질랜드	69.2 (8)	100.0 (1)	100.0
2	<b>한국</b>	<b>89.5 (3)</b>	<b>68.1 (11)</b>	<b>95.0</b>
3	스위스	98.8 (2)	57.0 (20)	94.9
4	미국	100.0 (1)	53.4 (25)	93.6
5	코스타리카	77.3 (7)	68.7 (9)	86.0
6	일본	89.5 (3)	53.8 (24)	85.7
7	룩셈부르크	61.1 (10)	85.7 (3)	84.5
8	캐나다	79.8 (6)	59.2 (19)	81.7
9	호주	89.5 (3)	47.4 (30)	81.6
10	칠레	53.0 (13)	88.1 (2)	79.8
11	이스라엘	61.1 (10)	75.4 (5)	77.8
12	멕시코	65.2 (9)	54.7 (22)	67.6
13	튀르키예	57.1 (12)	63.2 (14)	66.8
14	독일	53.0 (13)	65.4 (13)	65.1
15	에스토니아	49.0 (16)	68.8 (8)	64.2
16	네덜란드	44.9 (21)	66.6 (12)	59.7
17	오스트리아	49.0 (16)	60.4 (18)	58.8
18	콜롬비아	53.0 (13)	54.6 (23)	58.2
19	스페인	44.9 (21)	63.0 (15)	57.3
20	덴마크	28.7 (35)	76.2 (4)	53.5
21	스웨덴	28.7 (35)	74.6 (6)	52.4
22	벨기에	44.9 (21)	55.0 (21)	52.2
23	노르웨이	28.7 (35)	73.4 (7)	51.6
24	핀란드	32.8 (32)	68.6 (10)	51.6
25	체코	44.9 (21)	52.3 (27)	50.4
26	포르투갈	36.8 (29)	61.7 (17)	50.3
27	라트비아	44.9 (21)	49.0 (28)	48.3
28	아이슬란드	32.8 (32)	62.1 (16)	47.4
29	슬로바키아	49.0 (16)	41.0 (33)	46.3
30	리투아니아	44.9 (21)	45.1 (32)	45.8
31	슬로베니아	40.9 (27)	47.2 (31)	44.0
32	프랑스	49.0 (16)	33.2 (36)	41.2
33	그리스	32.8 (32)	47.8 (29)	38.2
34	아일랜드	36.8 (29)	39.8 (34)	36.1
35	영국	49.0 (16)	24.5 (38)	35.6
36	폴란드	36.8 (29)	38.4 (35)	35.2
37	이탈리아	40.9 (27)	30.0 (37)	32.9
38	헝가리	20.6 (38)	52.3 (26)	31.8





## 5. 재산세 분야

- 재산세 산정방법과 범위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
  - ▶ 대다수 국가에서의 재산세 정책들은 상당히 왜곡적이며 복잡
  - ▶ 상속세는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며 장기간 사업 활동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 재산세 분야에서 41.0점으로 32위 기록
  - ▶ 부동산세(37.4점, 34위) 항목과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으로 인해 재산세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 부유세는 70.9점으로 12위 기록
  
- 재산세 분야에서 에스토니아는 100점으로 1위, 이탈리아는 31.8점으로 38위 기록
  - ▶ 에스토니아는 부동산세, 부유세, 자산거래세 항목 모두 최고 점수 획득
  - ▶ 재산세에서 오직 부동산세만 존재하며 자산거래세나 부유세, 상속세 등도 없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 ▶ 이탈리아는 부동산세, 부유세, 자산거래세 항목 모두 30등 안에 들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표 8> 참조)

&lt;표 8&gt; 재산세 분야 3개 항목(2023)

재산세 순위	국가명	부동산세	부유세	자산거래세	재산세 지수
1	에스토니아	100.0 (1)	100.0 (1)	100.0 (1)	100.0
2	멕시코	73.7 (6)	100.0 (1)	79.1 (7)	80.5
3	슬로바키아	69.5 (14)	100.0 (1)	84.8 (5)	80.4
4	호주	82.6 (2)	100.0 (1)	63.9 (14)	79.4
5	라트비아	66.5 (17)	100.0 (1)	79.1 (7)	77.1
6	체코	73.9 (5)	70.9 (12)	100.0 (1)	76.7
7	리투아니아	70.9 (11)	70.9 (12)	100.0 (1)	75.3
8	뉴질랜드	46.0 (31)	100.0 (1)	100.0 (1)	74.6
9	코스타리카	70.7 (12)	100.0 (1)	63.4 (22)	73.6
10	스웨덴	67.9 (15)	100.0 (1)	63.9 (14)	72.5
11	이스라엘	48.4 (29)	100.0 (1)	79.7 (7)	68.6
12	독일	71.1 (9)	70.9 (12)	79.1 (7)	68.2
13	칠레	65.1 (19)	70.9 (12)	84.8 (5)	67.4
14	룩셈부르크	75.0 (3)	70.9 (12)	63.9 (14)	64.9
15	노르웨이	71.3 (8)	57.2 (32)	79.1 (7)	63.1
16	오스트리아	47.4 (30)	100.0 (1)	63.9 (14)	62.9
17	아일랜드	71.0 (10)	70.9 (12)	63.4 (22)	62.7
18	덴마크	58.4 (24)	70.9 (12)	79.1 (7)	62.3
19	핀란드	67.3 (16)	70.9 (12)	63.4 (22)	61.0
20	포르투갈	66.0 (18)	70.9 (12)	63.9 (14)	60.6
21	네덜란드	63.0 (21)	70.9 (12)	63.9 (14)	59.2
22	튀르키예	72.9 (7)	70.9 (12)	46.1 (32)	57.7
23	헝가리	70.0 (13)	70.9 (12)	48.1 (25)	57.0
24	슬로베니아	42.9 (32)	70.9 (12)	79.1 (7)	55.0
25	캐나다	38.8 (33)	100.0 (1)	46.6 (29)	52.9
26	일본	56.6 (25)	70.9 (12)	46.6 (29)	50.3
27	콜롬비아	63.8 (20)	57.2 (32)	46.1 (32)	48.2
28	그리스	50.0 (28)	70.9 (12)	46.6 (29)	47.1
29	미국	35.1 (35)	70.9 (12)	63.9 (14)	46.1
30	벨기에	61.8 (23)	49.4 (34)	48.1 (25)	45.1
31	폴란드	54.6 (26)	70.9 (12)	30.8 (37)	43.9
<b>32</b>	<b>한국</b>	<b>37.4 (34)</b>	<b>70.9 (12)</b>	<b>46.1 (32)</b>	<b>41.0</b>
33	프랑스	52.3 (27)	49.4 (34)	48.1 (25)	40.7
34	아이슬란드	22.6 (38)	70.9 (12)	63.9 (14)	40.2
35	영국	33.9 (37)	70.9 (12)	48.1 (25)	40.1
36	스위스	74.2 (4)	28.0 (37)	30.8 (37)	36.9
37	스페인	62.4 (22)	28.0 (37)	46.1 (32)	36.6
38	이탈리아	35.0 (36)	49.4 (34)	46.1 (32)	31.8



## 6. 국제조세 분야

-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기업들은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의 과세 처리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큼
  
- 속지세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외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 ▶ 세계의 흐름도 속인세 체계에서 속지세 체계로 변화
  - ▶ 1990년대 이래로 OECD 국가 중에서 속인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20개 이상에서 소수로 감소
  
- 한국은 국제조세 분야가 63.8점으로 26위 기록
  - ▶ 93개국과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 76.6점으로 9위 기록
  - ▶ 국내 기업의 국외 소득에 대해 높은 이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해외 시장 확대에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형태
  - ▶ 국외소득공제 항목 56.5점(34위), 원천과세율 45.4점(26위), 조세회피 규정 48.6점(22위) 기록
  
- 국제조세 분야에서 에스토니아는 100점으로 1위, 멕시코는 35.5점으로 38위 기록
  - ▶ 에스토니아는 국외소득공제(100점, 1위), 조세협정(81.8점, 3위), 조세회피 규제(97점, 2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 멕시코는 국외소득공제 항목에서 27.9점으로 37위를 기록하며 국제조세 분야 최하위를 기록
  
- 국가 간에 조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통 국가 간의 조세회피 규정에 의해 해결(<표 9> 참조)

〈표 9〉 국제조세 분야 4개 항목 (2023)

국제조세 순위	국가명	국외소득 공제	원천 과세율	조세협정	조세회피 규제	국제조세 지수
1	스위스	100.0 (1)	43.9 (28)	81.8 (3)	97.0 (2)	100.0
2	영국	100.0 (1)	67.6 (9)	100.0 (1)	48.6 (22)	97.4
3	헝가리	100.0 (1)	100.0 (1)	69.4 (17)	57.7 (11)	96.7
4	네덜란드	100.0 (1)	87.1 (4)	75.3 (11)	57.7 (11)	95.3
5	룩셈부르크	100.0 (1)	87.1 (4)	70.0 (16)	57.7 (11)	92.6
6	독일	97.3 (15)	63.4 (12)	77.9 (5)	57.7 (11)	87.5
7	튀르키예	100.0 (1)	62.1 (15)	72.6 (13)	60.7 (9)	86.5
8	이스라엘	100.0 (1)	36.9 (34)	54.4 (28)	100.0 (1)	84.8
9	라트비아	81.6 (16)	100.0 (1)	55.7 (26)	57.7 (11)	83.9
10	체코	81.6 (16)	62.8 (13)	76.6 (9)	57.7 (11)	81.7
11	에스토니아	81.6 (16)	91.2 (3)	55.7 (26)	57.7 (11)	80.8
12	노르웨이	80.7 (25)	78.5 (6)	72.0 (14)	48.6 (22)	80.7
13	스웨덴	100.0 (1)	74.2 (7)	69.4 (17)	39.5 (30)	80.2
14	프랑스	77.3 (28)	56.6 (17)	94.8 (2)	39.5 (30)	79.9
15	캐나다	69.8 (31)	38.0 (32)	77.9 (5)	78.8 (3)	78.8
16	오스트리아	100.0 (1)	58.8 (16)	73.3 (12)	39.5 (30)	76.9
17	스페인	78.9 (26)	48.5 (24)	77.2 (7)	57.7 (11)	76.2
18	슬로베니아	67.7 (32)	62.8 (13)	53.8 (29)	78.8 (3)	74.3
19	뉴질랜드	100.0 (1)	49.9 (22)	41.4 (35)	78.8 (3)	73.8
20	핀란드	81.6 (16)	65.3 (11)	64.8 (20)	48.6 (22)	72.7
21	호주	100.0 (1)	40.4 (29)	44.6 (33)	78.8 (3)	72.2
22	리투아니아	81.6 (16)	70.9 (8)	50.5 (32)	57.7 (11)	71.1
23	그리스	81.6 (16)	67.0 (10)	51.8 (31)	57.7 (11)	70.4
24	이탈리아	78.9 (26)	38.6 (31)	81.1 (4)	39.5 (30)	67.2
25	일본	74.9 (30)	49.3 (23)	63.5 (22)	48.6 (22)	64.4
<b>26</b>	<b>한국</b>	<b>56.5 (34)</b>	<b>45.4 (26)</b>	<b>76.6 (9)</b>	<b>48.6 (22)</b>	<b>63.8</b>
27	폴란드	58.0 (33)	51.2 (20)	71.3 (15)	48.6 (22)	63.7
28	포르투갈	81.6 (16)	38.0 (32)	65.5 (19)	48.6 (22)	63.6
29	덴마크	81.6 (16)	45.4 (26)	64.8 (20)	39.5 (30)	62.0
30	슬로바키아	81.6 (16)	39.1 (30)	61.6 (24)	48.6 (22)	62.0
31	코스타리카	100.0 (1)	54.0 (19)	17.3 (38)	75.8 (7)	61.6
32	아이슬란드	100.0 (1)	56.3 (18)	44.6 (33)	39.5 (30)	61.3
33	벨기에	100.0 (1)	25.6 (37)	77.2 (7)	21.3 (38)	59.8
34	아일랜드	51.5 (35)	46.1 (25)	62.9 (23)	57.7 (11)	59.2
35	미국	76.4 (29)	25.6 (37)	58.3 (25)	39.5 (30)	50.1
36	콜롬비아	46.2 (36)	50.4 (21)	23.2 (37)	60.7 (9)	39.9
37	칠레	27.9 (37)	30.7 (36)	36.8 (36)	69.7 (8)	38.0
38	멕시코	27.9 (37)	34.6 (35)	53.8 (29)	39.5 (30)	35.5

## IV

## 정책적 시사점

-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
  - ▶ 법인세가 OECD 평균 23.6%보다 높은 24.2%
  - ▶ 재산세와 개인소득세의 낮은 조세경쟁력 보완
  - ▶ 속인세 체계 탈피
  
-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감소 필요
  - ▶ 우리나라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따라 구간 별로 구분되긴 하지만 최대 법인세율이 22%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4.2%(OECD 평균 23.6%)
  - ▶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
  - ▶ 법인세는 노동자의 임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주며 제품 가격 상승의 요인
  
- 재산세와 개인소득세의 조세경쟁력 회복을 위해 세율을 낮추고 단순화 작업 필요
  - ▶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 자산거래세에서 복잡하고 왜곡된 재산세 규정이 존재하기에 단순화 필요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배당세율이 44%로 OECD 평균 24%보다 높음
  - ▶ 높은 재산세와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의욕 상실과 투자 및 저축 감소, 생산성 감소의 원인
  
- 해외 자본 유입을 위한 속인세 체계에서 속지세 체계로 변화 필요
  - ▶ 해외와의 차별과세를 완화하여 해외 자본의 유입이 원활하게 할 필요 존재



## 참고 문헌

- Alex Mengden(2023), “2023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Tax Foundation
-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